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는 2012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복음화를 위하여 다섯 가지 사목 목표를 매년 하나씩 실천하였습니다. 곧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각 본당과 기관에서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걸어온 이 여정은 허약했던 신앙의 기초를 보다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교구민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맺은 열매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교구의 사목 방향을 새로운 열정과 방법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교회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사도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역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의미대로 모든 이에게 ‘기쁜 소

